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3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 당 (19)	봉 헌 (212)	성 체 (156)	파 견 (286)
---------	------------	-------------	-------------	-------------

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1 구역 :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잼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2 구역: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

3 구역: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이 율리안나.

4 구역: 김 유스티나(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릅타,
 김 유스티노, 김희정, 고순영.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4	유요한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9/11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9/18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9/25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성인 복사
10/2	유요한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8/28/16	\$265	0.00	\$150

새 신자 교육 9월 부터 시작

9월부터, 한인공동체 새 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 합니다. 주위에 새 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실분이나, 관심이 있으신분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 마가렛 자매님께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전교의 女王

이화은 요안나 시인

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귀에 익은 구절을 일부러 패러디 보았습니다만, 전교에 있어서는 제 어머니가 이 "여왕"이라는 말의 품위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 백 년도 더 지난 작은 마을의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다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경북 진량이라는 작은 면소재지 마을에 살았습니다. 스님이 가끔 탁발을 오셨고 언덕 위의 가난한 교회가 그 동네 종교의 전부였으니 천주교는 가끔 바람결에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어머니는 온갖 신께 빌어 아이 열을 배어 넷을 건졌으니, 어머니의 자식 농사는 반타작도 못 되는 셈이었고, 전전공금 잡신들의 비위 맞추기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집안에 널려있는 온갖 부적들을 몽땅 불태우고 십 리 밖에 있는 하양 성당을 혼자서 찾았습니다. 누구의 안내나 권유도 없이 스스로 성당을 찾은 이유는 주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평생을 모시던 잡신들을 배신하는 일은 겁나는 일이었지만 무엇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했는지도 주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신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동네에 천주교를 들여올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셨답니다. 분당 신부님은 그래서 천주교의 불모지인 저희 동네에 공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시절이었으니 한두 끼를 거르는 일은 보통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식구들이 먹을 양보다 늘 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식구끼리만 밥을 먹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밥때가 되면 저녁 어스름처럼 밥 손님이 대문을 들어섰고, 밥상에는 늘 객식구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장에는 찬밥이 떨어진 적이 없었지요. 지나가다 들르는 사람들에게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한 어머니의 배려였습니다.

공동체 소식

교무금 납부 요망

교무금은 교회유지를 위하여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이며, 그 기원은 구약의 십일조에서 유래 합니다. 교무금에 대한 의무는 열심자와 냉담자, 성사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구별없이 모든 교우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성실히 신자의 의무를 수행하시어, 교회유지와 사업에 도움을 주시고, 주님의 은총, 또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협 임원회의: 9/11 (일) 오후 7 시

9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9월 11일(주일) 저녁 7시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주일 미사 시간 변경 (오전 9:00 시)

한인 공동체 미사시간이 오늘부터 오전 8:00 시에서 오전 9:00 로 변경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사시간에 더 많은 신도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10월 2일, 12시 30분. River Lakes C.C.

매년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인공동체 골프대회를 10월 2일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차고, 즐거운 골프대회를 위해, 준비위원으로 일하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은 이 요한 총무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성서통독) 안내

성경공부(성서통독)은 오늘 미사후에 본관 친교실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하는분은 누구나 참석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참석이 기대 됩니다.

밥이든 옷이든 베푸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어머니의 철학을 그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평소의 그 성품 덕분에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동네 사람들이 무조건 믿고 따랐습니다. 천주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공소에 사람들이 북적대던 것도 그 이유이겠지요.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자선은 하느님 나라의 고기를 낚기 위한 떡밥이었던 셈입니다.

한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전교 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전교가 훨씬 더 빨랐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정보나 속도가 아니라 혼이며 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모습의 의미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리 상식)

영성체를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미사 시작부터 온전히 참례하고 성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환자, 임종자,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은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도 성체할 수 있으며,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하더라도 다시 성체하도록 권장합니다.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한다면 두 번까지 성체할 수 있습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